

순모임 가이드

SmallGroupGuide

2020년 10월 첫째주일

“번제단”

출애굽기 27:1-8

찬양: 이 세상 험하고 (263장/통197장)

1. 성막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놋제단)입니다. 성막에 들어간 자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태워 없애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번제단 네 모퉁이에 만든 제단뿔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제단뿔을 잡음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제단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뿔을 잡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제단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 받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나요?
3.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짐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계시는지 나눠 보세요.
4.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 보세요. (참고/ 로마서 12:1-2, 로마서 6:13)